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ol. 18, No. 1, 2007

1920~1960년대 제주시 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Transformations of Houses in Jeju City from 1920's to 1960's

김형남*
Kim, Hyung-Nam

Abstract

Houses in Jeju city are divided into separated types and combination types of household affairs space. Other special types are separated-kitchen type. Separated household affairs space type is mostly built. Separated household affairs space type were sitting room + Gopang separate type and separate sitting room type. Combination household affairs space type made from sitting room, kitchen, Gopang and Chabang(Dinning room) put together as space differentiation, also into classes sitting room + kitchen + Gopang + Chabang type, sitting room + kitchen + Chabang type, sitting room + kitchen + Gopang, sitting room + kitchen type by combination household cares space type. Separated-kitchen type was one of the special type from separated-kitchen type of traditional housing, and type with continuous. Houses in Jeju city were 3 kan type and 4 kan type. 4kan type was mostly built. — shape is kept as plan shaped of straight shape, and roof shape is showed as — shape gathering roof. — shape + part projection type talls part projecting type as happened in Gopang, and Chabang. Roof is gathering roof, and when it is showed ㄱ shape by Gopang, Chabang, and kitchen are projected. — shape + total projection shape is one of the room become totally projected by Gopang and Chabang, can be happen with small room or kitchen, and roof as gathering roof shaped with — shape, ㄱ shape, ㄷ shape, unsystematic ㄹ shape, and various shapes.

Keywords : Houses in Jeju city, Separated household affairs space type, Combination household affairs space type, separated-kitchen type

주 요 어 : 제주시 주택, 가사공간 분리형, 가사공간 조합형, 별동부엌형

I. 서 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주거는 인류의 보편적 삶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건축물이다. 사전에 뚜렷한 의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궁궐이나 사찰과는 달리 민중의 집은 오랜 세월과 역사를 거치면서 인간의 지혜가 모여서 만들어진 가장 기능적이고 합리적이며 자연스러운 건축물이다.[1] 따라서 건축사 연구에서 주택사에 대한 연구는 특정 국가나 지역 그리고 시대를 막론하고 당위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택사 연구의 다양한 연구성과와 업적은 한국 건축사 연구의 초석을 이루고 있으며, 지역사적인 관점에서 지역 주택사에 대한 많은 연구성과가 이루어진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지역 주택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는 한국 주택사의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제주도 주택에 대한 연구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건축된 전통초가나 와가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연구결과는 제주도 전통민가의 특성과 우수성(챗방의 존재 등)을 밝혀내었으며, 동시에 제주지역 주택사 연구의 초석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제주도 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1900년 이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제주지역의 주택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주시 지역은 급속한 현대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주거지의 도로 확장이나 노후건물의 철거 그리고 신축건물의 건설로 인하여 제주시의 도시 서민주택에 대한 연구는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 주택사 연구에서 누락됐던 192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제주시에서 건축된 도시 서민주택을 연구함으로써 도시 서민주택의 건축적 특성을 고찰함과 동시에, 향후 제주도 주택을 연구하는데 하나의 교량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주택의 평면분석을 통한 질적연구방법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평면분석의 분류 기준은 첫째, 안방의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명지대 대학원 박사과정

1) 노버트 쉐나우어, 김연홍 옮김(2004), 『집-6,000년 인류주거의 역사』, 다우, p.8.

위치와 주부의 가사노동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제주시 주택이 안방의 위치에 따라 구별되고 또한 주부의 가사노동이 주로 일어나는 부엌과 고팡, 챗방(찻방)의 배치에 따라 다양한 평면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시 주택을 안방과 주부의 가사노동공간에 따라 분류한 것은 제주시 주택이 제주도 전통민가의 연장선상에서 형성되고, 또한 그것이 변화·발전한 평면형태라는 기본적인 전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형태적(외형적) 분류를 통한 제주시 주택의 외형적 변화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외형적 평면변화가 각 시대별로 그 차이를 보이며 나타나고 있고, 이것 또한 중요한 제주시 주택의 건축적 특성으로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조사 대상지역은 제주시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이며, 대상범위는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이다. 조사 대상지역을 제주시 5개 동에 한정한 것은 행정구역상 인접해 있어서 건축물의 건축시기나 외형적인 구분이 용이하고, 그 지역에 제주시 주택이 널리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대상범위를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로 한정한 것은 개항이후 일제강점기라는 시기에서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시기 사이에 나타나는 제주시 주택의 건축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 건물은 총 3차에 걸친 현장조사로 137채를 실측 완료하여, 이중에서 연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건물을 제외한 97채(안채 기준)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건물의 건축연대는 상량문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상량문에 기재된 연대로 하였으며, 다른 건물들은 구등기부등본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여기에 건축물관리대장과 주민과의 면담(증언)을 참고로 하였다.

II. 평면유형 분류

주생활의 기본적 내용은 개인적인 잠자리와 사회적 인간관계의 공간 및 가사노동 공간으로 나누어지겠지만, 이 가운데 시대가 발전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현저하게 변화하는 것이 가사노동 부분이다. 우선 가사노동의 방법이 달라지고 담당자가 변천하며 노동방법의 기초로서 땔감(에너지원)이 바뀌는 것이다.[2]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사노동 행태에서 중요한 변화는 그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땔감의 변화에 있다. 1950년대까지 장작이 주 에너지원이던 것이 나무의 고갈로 말미암아 1960년대 이후 연탄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었다.[3]

제주시 주택의 실 구성에 의한 평면유형 분류는 이러한 가사노동과 땔감의 변화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것은 대상지역이 도시라는 점에서 농촌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사노동과 땔감의 변화에 의한 영향이 보다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2) 김홍식(1992),『한국의 민가 - 제1권』, 한길사, p.63.
3) 김홍식, ibid, p.64.

연료의 변화에 따라 연료의 점유면적이나 작업 소요공간의 축소가 가능해졌으며 이것은 부엌 면적의 축소를 가져왔다. 도시주택 초기에는 농업 부산물이나 장작을 주연료로 사용하였으나 점차 나무의 채취나 장작의 구입이 용이치 못하게 된다. 더욱이 1950년대 이후 인구의 증가와 산림자원의 고갈은 특히 도시에서 연료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었고,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하는 땔감으로서 연탄이 제안되었다.[4] 이후 도시주택에서 취사 및 난방재료는 주로 연탄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불때기에 필요한 작업공간이 점차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부엌공간이 차츰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제주시 주택의 평면유형은 안방과 부엌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가사공간 분리형, 안방과 부엌이 서로 면해 있으면 가사공간 조합형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정지(부엌)가 안거리(안채)에는 없고 별동으로 건축된 경우는 별동부엌형으로 구분했다.

1.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

가사공간 분리형은 마루를 사이에 두고 안방이 부엌 반대편에 위치하는 유형이다. 가사공간 분리형은 주부의 가사 노동공간인 안방과 부엌을 중심으로 볼 때 제주도 민가(초가)의 전통적인 내부공간 구성에 유사한 구조를 하고 있다. 가사공간 분리형은 크게 2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하나는 안방과 고팡이 부엌 반대편에 위치하는 안방·고팡 분리형이고, 다른 하나는 안방만이 부엌 반대편에 위치하고 고팡이나 챗방은 부엌 내에 위치하거나 부엌에 근접 배치되는 안방 분리형이다.

1) 안방+고팡 분리형

안방+고팡 분리형은 평면의 중앙에 마루를 두고 좌측 또는 우측에 안방과 고팡이 서로 면해서 위치하고, 부엌과 챗방이 그 반대편에 위치한 형이다. 안방+고팡 분리형은 평면구성에서 제주도 전통민가와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고팡과 챗방이 존재한다는 점,

둘째, 안방과 고팡이 마루를 사이에 두고 부엌과 서로 마주하여 배치하는 점,

셋째, 안방이 고팡과 면해 있으며 고팡이 안방 후면에 위치하는 점 등이다.

이러한 특징은 안방+고팡 분리형이 제주도 전통민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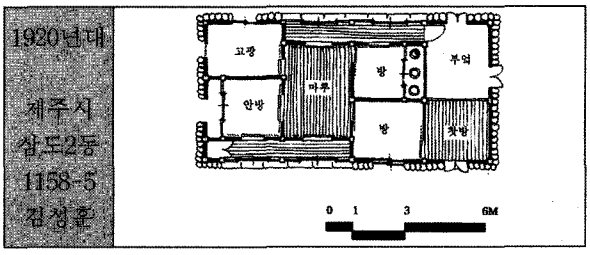

그림 1. 가사공간 분리형 중 안방+고팡 분리형

4) 김홍식, ibid, p.59.

제주시 주택으로 변화하여 나타난 형태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내부공간 구성은 제주도 전통민가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안방 분리형

(1) 부엌+고팡+챗방 형

부엌+고팡+챗방 형은 안방이 마루를 사이에 두고 부엌과 마주해 있으며, 부엌은 고팡, 챗방과 하나의 군을 형성하고 있는 형이다. 이 형은 1930년대를 제외하고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엌, 고팡, 챗방이 ㄱ자의 형태를 이루며 배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4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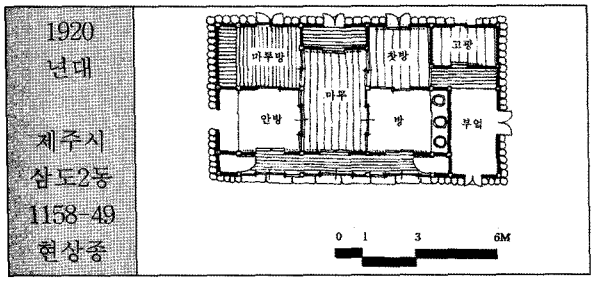

그림 2. 안방분리형 중 부엌+고팡+챗방 형

(2) 부엌+고팡 형

부엌+고팡 형은 4칸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챗방은 없고 부엌과 고팡 만 있으며, 부엌은 평면의 정면에 위치하고, 옆에는 작은방이 배치된다. 고팡은 부엌 후면에 위치하며, 고팡과 부엌사이에 쪽마루가 시설된다. 챗방이 없어지면서 마루나 방에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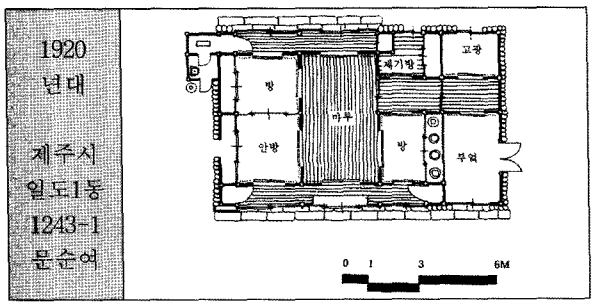

그림 3. 안방분리형 중 부엌+고팡 형

(3) 부엌+챗방 형

부엌+챗방 형은 3칸형과 4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방과 부엌이 마루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여 배치되어 있고, 부엌과 챗방이 면해 있으며 고팡이 없는 형이다.

이 형은 부엌과 챗방의 위치에서 각 시대별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30년대에는 챗방이 부엌 후면에 배치되어 부엌은 평면의 정면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1950년대가 되면 부엌 전면에 방이 배치되거나 추가되어 부엌이 평면의 후면에 배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챗방은 부엌의 측면에 배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 주택에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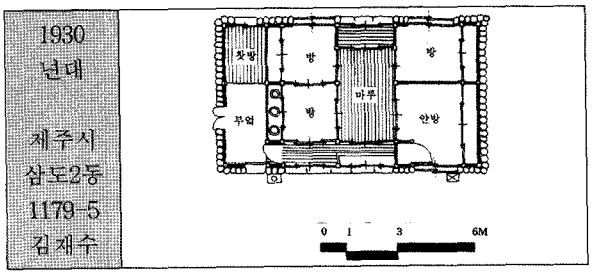

그림 4. 안방분리형 중 부엌+챗방 형

(4) 부엌 단독형

부엌 단독형은 3칸형으로만 나타나며 1940년대에서 1950년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형이다. 이 형은 안방이 마루를 사이에 두고 부엌과 마주하여 배치됐으며, 고팡과 챗방이 없는 형이다. 부엌 단독형은 3칸형 중에서도 규모가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부엌은 평면의 후면에 배치되며, 부엌전면에 작은방이 위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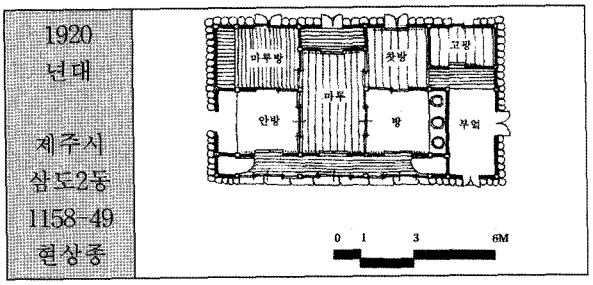

그림 5. 안방분리형 중 부엌 단독형

2.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

가사공간 분리형은 안방과 부엌이 마루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여 배치되는데 반해서, 가사공간 조합형은 안방과 부엌이 서로 면해 있는 형이다. 따라서 가사공간 조합형은 안방과 부엌이 마루를 기준으로 하여 좌측 또는 우측에 배치되어 고팡, 챗방과 함께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며, 그 반대편에 작은방이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여 배치되는 형이다.

1) 안방+부엌+고팡+챗방 형

(1) 田자 조합형

田자 조합형은 주부 가사노동공간 즉, 부모세대공간(안방, 부엌, 고팡, 챗방)이 田자로 조합된 형을 말하며,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평면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4칸형으로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田자 조합형은 전면부엌형과 속부엌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면부엌형은 田자 조합형 중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형으로서,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평면형이다. 이 형은 부엌이 평면의 전면에 배치되며, 부엌 후면에는 고팡이 배치된다. 안방 또한 평면의 전면에 배치되며, 안방 후면에는 챗방이 면해 있다.

속부엌형은 田자 조합형 중에서 부엌이 실과 실 사이에 위치하는 형을 말한다. 부엌 전면에 작은방이 배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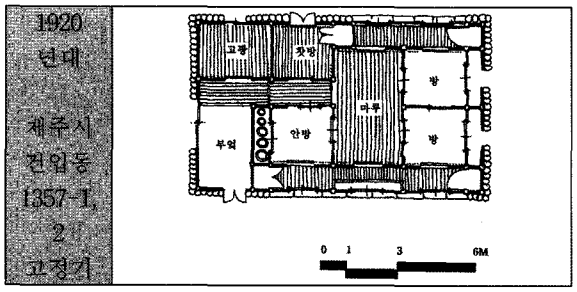

그림 6. 田자 조합형 중 전면부엌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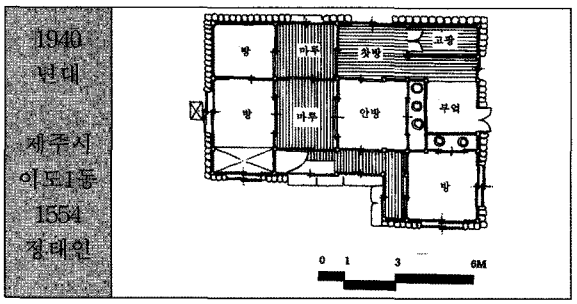

그림 7. 田자 조합형 중 속부엌 형

기 때문에 부엌은 작은방과 고팡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속부엌형은 전면부엌형에서 작은방이 하나 추가되면서 나타나는 형으로 볼 수 있다.

(2) L자 조합형

이 형은 부엌, 챗방, 고팡이 I자의 형태로 일렬로 배치되고, 안방이 부엌 옆에 배치되어 L자 형태를 이루면서 주부 가사노동공간을 형성하는 형태이다. 마루 반대편에는 자녀세대공간(작은방)이 배치된다. L자 조합형은 田자 조합형의 전면부엌형에서 챗방이 부엌 칸으로 이동하여 나타난 형태라고 보며, 챗방이 있던 공간에 작은방이 배치되는 것은 자녀세대보다는 부모세대의 기능적인 필요에 의한 것으로 생각한다. L자 조합형은 전면부엌형과 속부엌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면부엌형은 L자 조합형 중에서 부엌이 평면의 전면에 위치하는 형이며, 안방 또한 부엌 옆에 위치하여 평면의 전면에 위치하는 형이다. 이 형은 4칸형으로 나타나며, 다른 평면형에 비해서 평면 면적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속부엌형은 3칸형으로 전면부엌형에 비해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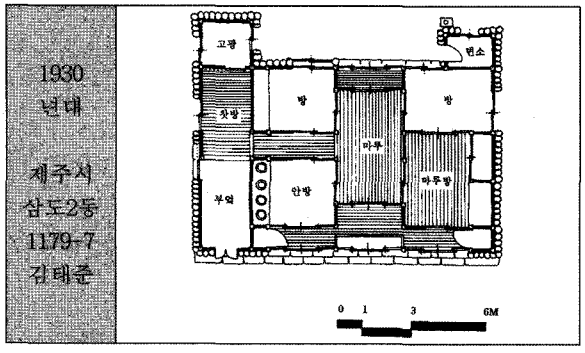

그림 8. L자 조합형 중 전면부엌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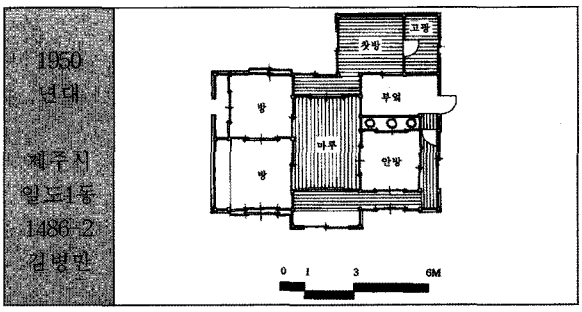

그림 9. L자 조합형 중 속부엌 형

면면적이 작게 구성되고 이로 인해 부엌이 안방 후면에 배치된 형태로 생각한다. 안방 후면에 부엌, 고팡, 챗방이 배치되며, 특히 고팡과 챗방은 평면 외부로 돌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I자 조합형

I자 조합형은 3칸형으로 평면이 ㄱ자형으로 구성되며 안방, 고팡, 챗방, 부엌이 I자의 형태로 일렬로 배치되어 주부 가사노동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마루를 사이에 두고 좌측에는 주부 가사노동공간을 위주로 한 부모세대공간이 배치되고, 우측에는 자녀세대공간(작은방)이 배치된다.

I자 조합형은 L자 조합형에서 안방이 부엌칸으로 이동하거나, 부엌칸이 안방칸으로 위치 이동하여 나타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1950년대에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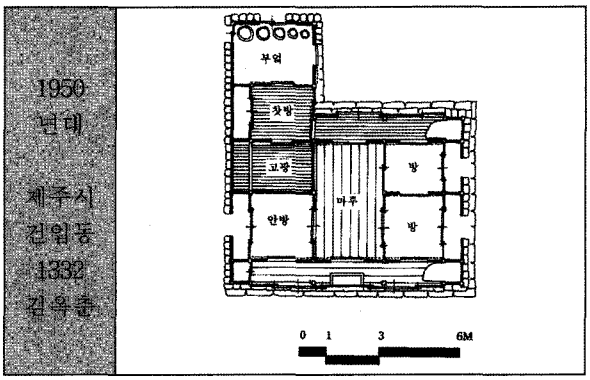

그림 10. I자 조합형

2) 안방+부엌+챗방 형

안방+부엌+챗방 형은 가사공간 조합형 중에서 고팡이 평면 내에 존재하지 않는 형으로 3칸형과 4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형은 마루를 기준으로 좌측 또는 우측에 주부 가사노동공간인 부모세대공간이 배치되고, 그 반대편에 작은방으로 구성된 자녀세대공간이 배치된다.

(1) 전면부엌 형

전면부엌형은 4칸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엌 후면에 챗방이 위치하며 안방은 부엌 옆에 위치한다. 안방은 넓은 한 칸으로 구성되거나 후면에 방을 하나 더 배치하여 두 개의 방을 하나로 쓰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 후면부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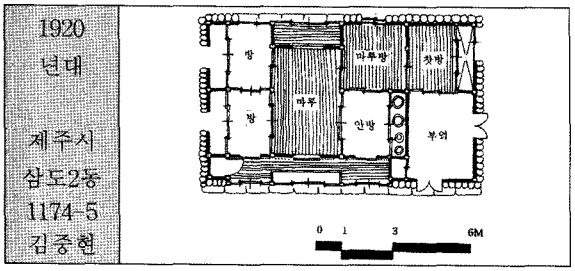

그림 11. 안방+부엌+챗방 형 중 전면부엌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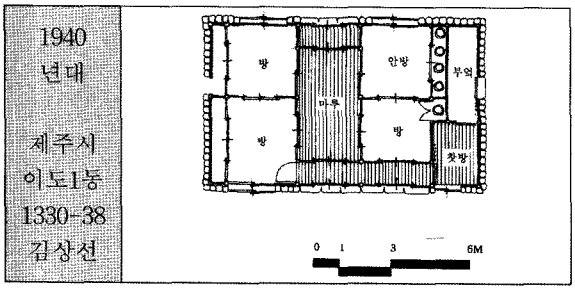

그림 12. 안방+부엌+챗방 형 중 후면부엌 형

후면부엌형은 4칸형으로 나타나며, 1940년대와 1960년대는 챗방이 부엌 전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부엌이 평면의 후면에 배치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1950년대에는 부엌공간이 평면의 후면에 위치하나 작은방이 부엌 앞에 배치되고 챗방은 부엌옆에 위치하고 있다.

(3) 전면안방 형

전면안방형은 3칸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안방, 고팡, 챗방이 주부 가사노동공간을 형성하며, 특히 안방이 부엌의 전면에 배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면안방형에서 특이한 점은 챗방의 변화에서 볼 수 있다. 1940년대는 챗방이 부엌과 마루에 걸쳐서 배치되다가 1960년대가 되면 완전히 마루 후면에 위치하게 되는 변화과정을 보이고 있다.

3) 안방+부엌+고팡 형

안방+부엌+고팡 형은 평면 내에 챗방이 설치되지 않는 형이며, 고팡은 부엌 후면에 위치한다. 안방은 부엌 옆에 배치되다가 차후 부엌 전면에 배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안방+부엌 형

안방+부엌 형은 안방과 부엌만으로 주부 가사노동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며, 작은방이 마루 건너편에 배치되어 자녀세대가 생활한다. 이 형은 규모가 작은 3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으며, 챗방과 고팡은 평면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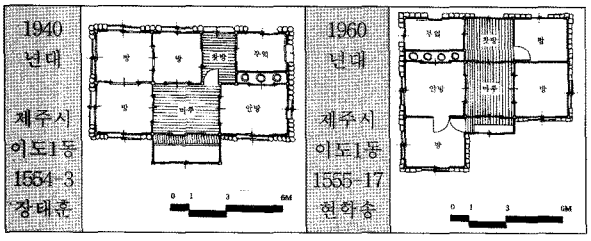

그림 13. 안방+부엌+챗방 형 중 전면안방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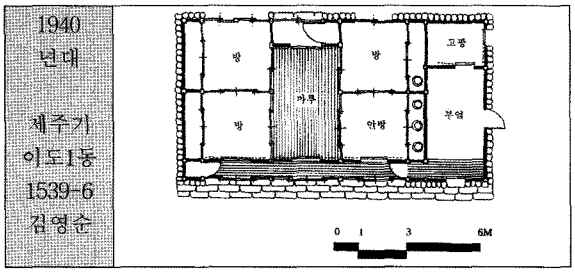

그림 14. 안방+부엌+고팡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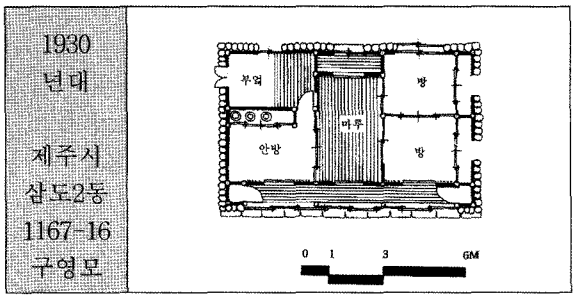

그림 15. 안방+부엌 형

3. 별동부엌형

제주도 민가에서는 안거리 옆에 목거리를 두어 정지가 독립되는 예를 볼 수 있다. 이는 제주도의 화덕구조가 난방과 취사를 분리하였으므로 정짓간이 독립되는 것으로, 고구려 벽화에서처럼 정짓간이 완전히 독립되어 따로 있는 것이며, 식사공간까지 함께 마련된다. 민중들의 생활은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과중한 외부노동과 가중되는 가사노동을 모두 주부가 담당해야 하므로 자연히 기능적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여겨진다.[5]

제주 민가의 별동 정지형은 상류층 민가와 일찍 도시성 취락을 형성한 제주성내, 화북, 조천, 애월 등의 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민가형식이다.[6] 별동정지형 민가는 창건주가 지배층이거나 부농 계층에 속하는 신분이었고, 중·대형민가이며, 안거리의 간잡이는 공통적으로 3칸 형식을 고수하고 있다.[7]

제주도 민가에서 보이는 별동정지가 제주시 주택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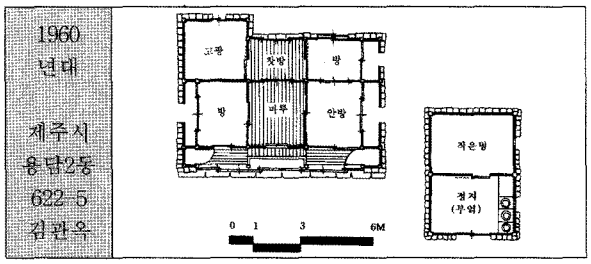

그림 16. 별동부엌형

5) 김홍식·김석윤·신석하(1996), 『제주의 민속IV-주생활편』, 제주도, p.511.
6) 김석윤(1996),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박사논문, p.97.
7) 김석윤, ibid, p.105-106에서 재정리.

그 유형적 지속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별동부엌형이다. 전통민가의 별동정지형에서 안거리(안채)가 3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시 주택에서 나타나는 별동부엌의 안거리도 3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III. 시대별 평면유형의 변천

1.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

1) 안방+고팡 분리형

안방+고팡 분리형은 1920년대, 1940년대 그리고 1960년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형은 1920년대는 4칸형의 평면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40년대와 1960년대는 3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1920년대는 부엌의 위치가 건물의 후면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1940년대와 1960년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1920년대와 1940년대 주택은 작은방이 3개로 구성되나 1960년대 주택은 작은방이 2개로 구성되고 있다. 챗방과 고팡은 1940년대 주택에서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평면적의 협소로 취침실인 방의 수는 3개로 하는 대신 챗방과 고팡은 두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1940년대 주택은 부엌이 건물 후면에 돌출되어 나타나고 1960년대 주택에서는 부엌은 건물 후면에 현관은 정면에 돌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툇마루는 1920년대 주택에서는 평면의 전면과 후면에 설치되다가 1940년대 주택에서는 건물의 정면에만 설치되고, 1960년대 주택에서는 툇마루가 사라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 안방 분리형

부엌+고팡+챗방 형은 1930년대를 제외하고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형은 비교적 평면면적이 크게 구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4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안방은 평면의 전면에 설치되고 부엌 또한 평면의 전면에 위치하다가 1960년대가 되면 부엌전면에 작은방이 추가되면서 속부엌화되고 있다. 따라서 방의 수는 192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는 3개로 구성되다가 1960년대가 되면 4개로 구성되고 있다. 툇마루는 평면의 전면과 후면에 설치되며, 1960년대가 되면 툇마루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현관은 1960년대에만 건물의 정면에 돌출되어 설치되고 있으며, 고팡은 평면의 후면에 돌출되어 배치되고, 안방이 평면의 전면으로 돌출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엌+고팡 형은 1920년대와 1940년대에만 나타나고 있으며, 4칸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 내에 챗방이 구성되지 않는 대신 1920년대 주택에서는 제기방이 설치되고 1940년대 주택에서는 작은방이 설치되고 있다. 툇마루는 평면의 전면과 후면에 비교적 넓게 배치되고 있다. 이 평면형은 1920년대와 40년대에만 나타나고 있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평면형으로 생각한다. 챗방이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 작은방으로 변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실 구성의 변화는 지리적 특수성이나 가족구성원의 변화 그리고 주생활의 변화로 인한 실 면적 또는 수의 증가로 생각한다.

부엌+챗방 형은 1930대에 나타나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서 지속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형은 1930년대와 1960년대는 4칸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50년대는 3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엌은 1920년대 주택에서는 평면의 정면에 위치하다가 1950년대와 60년대가 되면 평면의 후면에 배치되고 있다. 1950년대 주택에서 부엌은 평면의 후면에 돌출되어 배치되고 있다. 방의 수는 1920년대와 60년대에는 4개로 구성되고 1950년대 주택에서는 평면적의 협소로 3개로 구성되고 있다. 툇마루는 평면의 전면과 후면에 설치되는데 1960년대가 되면 현관이 설치되면서 마루의 후면과 전면에만 설치되고 있다.

부엌 단독형은 1940년대와 1950년대 주택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3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부엌은 평면의 후면에 배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1940년대 주택은 부엌이 평면의 후면에 돌출되어 배치되고 있다. 1940년대에는 방이 3개로 구성되고 1950년대에는 작은방이 평면의 정면에 돌출형태로 추가 배치되어 4개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950년대 주택은 평면형태가 ㄱ자로 꺽이면서 구성되고 그로 인해 지붕의 형태 또한 ㄱ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2. 가사공간(안방·부엌) 조합형

1) 안방+부엌+고팡+챗방 형

田자 조합형은 전체 평면형 가운데 가장 많은 분포빈도를 보이며 나타나고 있는 형이며, 전체적으로 4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형에 비해 평면면적이 넓게 구성되고 있다. 田자 조합형 중 전면부엌형은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평면형이며, 속부엌형은 1940년대 이후로 나타나고 있는 평면형이다. 돌출은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돌출이 일어나는 주된 실은 고팡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면부엌형은 취침실인 방이 대부분 3개로 구성되고 작은방이 하나 더 추가되어 배치될 경우에는 덧붙이거나 챗방 공간의 뒤에 작은 방을 만드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형은 연대별로 방의 수가 뚜렷하게 변하지 않고 있으며, 평면구성의 형태 또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40년대에 작은방이 평면의 전면에 돌출되기도 하며, 1950년대에는 고팡이나 현관이 평면의 전, 후면에 돌출형식으로 배치되어 다소 불규칙한 평면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툇마루는 평면의 전면과 후면에 설치되는데 시대별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관은 1930년대와 1950년대 주택에서 간혹 나타나고 있으며, 마루의 정면에만 설치되고 있다.

속부엌형은 전면부엌형에서 작은방이 부엌의 전면에 배치되면서 부엌이 속부엌화되는 평면형이기 때문에 방의 수가 전면부엌형에 비해 하나 정도 많다. 이 형은 전면부엌형의 다음 단계에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속부엌형은 1940년대에는 작은방이 전면에 돌출되어 나타나고 1950년대에는 작은방은 돌출되지 않고 고팡 및 챗방이 평면의 후면에 돌출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작은방과 고팡, 챗방이 평면의 전면과 후면에서 돌출하면서 불규칙한 형태의 평면을 보이기도 한다.

L자 조합형은 1930년대에 나타나서 1960년대까지 지속되는 평면형이다. L자의 형태는 평면에서 좌, 우측에 배치되어 간살이 바뀌기도 한다. 이 형의 가장 큰 특징은 고팡이 평면의 후면에 돌출, 배치되어 L자를 이룬다는 것이다. L자 조합형은 전면부엌형과 속부엌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면부엌형은 193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가 4칸형으로만 구성되고 있다. 속부엌형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3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면부엌형은 1940년대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1950년대가 되면 고팡이 평면 후면의 양쪽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며, 1950년대가 되면 챗방, 고팡, 작은방이 평면의 후면에 돌출되어 ㄱ자의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툇마루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평면의 전면과 후면에 배치되는데 특히, 후면에는 마루부분에만 배치되고 있다. 현관은 1950년대에만 나타나고 있다.

속부엌형은 안방이 부엌의 전면에 위치하여 부엌이 속부엌화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방의 수는 전면부엌형과 차이가 없이 3개로 구성된다. 이 형은 전면부엌형에서 변화된 평면형으로 볼 수 있으며, 챗방의 위치변화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챗방은 전면부엌형에서 부엌의 뒤에 배치되다가 1950년대에는 부엌과 마루사이에 배치되는 경향을 보이며, 1960년대가 되면 마루 뒤편에 위치하는 변화과정을 보이고 있다. 툇마루는 1950년대에 비해 1960년대가 되면 작게 구성되거나 전혀 설치되지 않고 있다.

I자 조합형은 L자 조합형의 다음 단계에서 보이는 형으로써 1940년대에 일시적으로 보이는 평면형이고, 3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이 형은 3칸형이면서도 평면면적이 넓게 구성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평면형태는 ㄱ자를 이루고 있다. 이 형은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평면형태로 보이며, 차후에 이러한 평면형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형적 지속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형은 L자 조합형으로 흡수되거나 1950년대 이후의 L자 조합형의 변화과정에 편입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2) 안방+부엌+챗방 형

전면부엌형은 1930년대를 제외하고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평면형이다. 4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으며 챗방이 부엌의 후면에 배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면부엌형은 간혹 1950년대 주택에서 방이 3개로 구성되는 형태도 보이고 있으나,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방의 수가 4개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툇마루는 시대별로 뚜렷한 면적변화는 없으며, 평면의 전면과 후면에 배치되고 있다.

후면부엌형은 194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나타나는 평면형이며, 시대별로 4칸형으로만 구성되고 있다. 방은 194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4개로 구성되고 있으며, 1940년대와 1960년대 주택에서 안방이 평면의 후면에 배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40년대 주택은 챗방이 부엌의 전면에 위치하며, 1950년대에는 작은방이 부엌의 전면에 위치하고, 1960년대에는 부엌의 전면에 챗방이 배치되고 있다. 특히 1960년대가 되면 부엌의 면적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툇마루는 평면의 전면과 후면에 배치되며, 시대별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현관은 1960년대 주택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전면안방형은 1940년대와 1960년대에 나타나는 평면형으로써 1940년대는 4칸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60년대에는 3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면안방형은 전면 부엌형의 변형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챗방의 위치 변화과정에서 시대별로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40년대 이전에는 챗방이 부엌의 뒤편에 위치하다가 1940년대가 되면 챗방은 부엌과 마루에 걸쳐서 배치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1960년대가 되면 챗방이 마루의 후면에 배치되어 마루의 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챗방의 위치는 부엌의 후면이나 옆에 위치하다가 점차 마루의 후면으로 이동하여 배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3) 안방+부엌+고팡 형

안방+부엌+고팡 형은 1940년대와 196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 평면으로써 1940년대에는 4칸형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1960년대가 되면 3칸형으로 구성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4칸형에서 3칸형으로 변화되면서 평면면적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40년대 주택의 부엌은 평면의 전면에 위치하다가 1960년대가 되면 안방이 부엌의 전면에 배치되면서 속부엌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부엌면적은 1940년대 보다 1960년대가 작은 면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마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챗방이 없기 때문에 마루에서 식사를 하며, 고팡은 1940년대에는 부엌의 후면에 배치되다가 1960년대가 되면 부엌의 후면에 돌출되어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1960년대의 평면형태는 ㄱ자로 꺽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툇마루는 1940년대에는 평면의 전면과 후면에 비교적 넓게 배치되나 1960년대가 되면 평면면적의 협소로 마루의 전면과 후면에 작은 면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1960년대에는 현관이 마루 전면에 배치되면서 전면 툇마루는 쪽마루 형식으로 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안방+부엌 형

안방+부엌 형은 다른 평면형에 비해 평면면적이 작게 구성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193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형은 전체적으로 3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방의 수는 전체가 3개로 구성되고 있으며, 챗방과 고팡이 없는 형태이다. 툇마루는 1950년대까지는 비교적 넓게 구성되고 있지만 1960년대가 되면 툇마루가 없고 현관이 설치되고 있다.

3. 별동부엌형

별동부엌형은 1940년대와 196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 평면유형으로서 안채는 3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정지(부엌)건물은 정면 1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 형은 뚜렷한 변화과정을 보기는 힘들지만 챗방의 위치변화는 보이고 있다. 챗방은 1940년대에는 안방의 후면에 배치되고 있으며, 1960년대가 되면 마루의 뒤쪽에 배치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다른 평면형 중에서도

표 1. 연대별 평면유형 분포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합계
가사공간 분리형	3	1	5	4	3	16 (16.5%)
가사공간 조합형	4	6	29	16	24	79 (81.4%)
별동 부엌형	-	-	1	-	1	2 (2.1%)
합계	7(7.2%)	7(7.2%)	35(36.1%)	20(20.6%)	28(28.9%)	97(100%)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방은 3개로 구성되고, 툇마루는 1960년대에는 마루의 전면에만 설치되고 있다.

제주도 민가의 딴정지형이 제주시 주택에도 지속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적 증거라고 볼 때 제주시 주택의 별동부엌형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IV. 평면형태 변화

제주시 주택의 평면 외형 변화를 관찰함에 있어 그 기준은 제주도 전통초가의 一자형 겹집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제주시 주택의 평면구성이 제주도 전통초가의 평면구성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 외형 또한 일자형의 연속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제주시 주택의 평면을 외형에 의하여 분류하면 크게 一자형, 一자+부분돌출 형, 一자+완전돌출 형으로 나눌 수 있다. 一자형은 돌출부가 전혀 없는 형태를 말하며, 부분 돌출형은 하나의 실이 부분적으로 돌출된 형을 말한다. 완전 돌출형은 하나 이상의 실이 완전히 돌출되거나 덧붙여진 형태를 말한다. 외형 분류는 안채(안거리)만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제주시 주택이 살림채 하나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안채로 하여 분류하였다.

1. 一자형

제주도의 민가는 한일자 모양의 겹집에 속하며 남해안, 특히 남해도서지역의 민가와 평면구성 및 배치 상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해도서지역은 살림채인 안채만 발달하고 곁채는 단순한 경영시설인 데 비해서 제주도에서는 안거리, 밖거리가 모두 살림채로서 구성되며 공간구분이 남녀가 아닌 세대별 구분이라는 점과 살림을 따로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특이한 유형이다. 또한 건물의 규모는 육지에 비해서 대단히 큰 반면 건물의 높이는 외부에서 볼 때 비교적 낮다.[8]

一자형은 제주시 주택의 안채 중에서 제주도 전통민가(초가)의 一자형의 평면을 유지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유형은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20년대 제주시 주택의 평면 외형은 一자형을 고수하는 형태가 지배적이며, 돌출이 일어나더라도 고팡 부분에서만 작게 일어나고 있다. 一자형은 3칸형과 4칸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4칸형에서 一자형을 유지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2>에서 보면 전체 97채 중에서 一자형은 42채(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른 형에 비해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一자형은 1920년대에서 1950년대 제주시 주택 중에서 거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으며, 1960년대가 되면 그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 연대별 평면형태 분포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합계
일자형	6	2	21	7	6	42(43%)
일자+ 부분돌출형	1	4	6	7	9	27(28%)
일자+ 완전돌출형	0	1	8	6	13	28(29%)
합계	7	7	35(2)	20	28(3)	97(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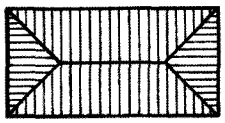

그림 17. 一자형의 지붕형태

一자형 제주시 주택의 지붕은 전체가 모임지붕이며, 그 형태는 꺽임이 없이 一자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一자형은 제주도 민가의 외형적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외형적 지속성은 도시 서민들의 의식 속에 내재된 전통성 유지 및 계승의 외적표현으로 볼 수 있다. 제주시 주택의 외형이 시간이 지나면서 一자형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감에 따라 외형적 지속성 또한 약화되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一자 + 부분돌출 형

제주도 민가는 한일자 겹집을 기본으로 하여 분할식으로 평면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는 새로이 짓지 않으면 안된다.[9] 따라서 공간을 넓히기 위하여 돌출시키거나 덧붙이는 일이 없다.

제주시 주택에서 공간을 넓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분적으로 돌출을 하거나 덧붙이는 것이며, 이것이 一자+부분돌출 형이다. 부분 돌출이나 덧붙임은 대략 반 칸을 전후로 하여 일어나며, 건물의 정면과 배면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다. 부분 돌출이나 덧붙임이 일어나는 실은 주로 고팡과 챗방이며, 작은방과 부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1960년대에 간혹 안방이 부분 돌출하는 주택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안방과 마루는 돌출되지 않는 실로 판단한다.

1930년대 이후 현관의 덧붙임에 의해서 부분 돌출이 일어나는 경우도 나타나기 시작하며, 특히 현관은 툇마루의 유무에 관계없이 마루 전면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현관이 언제부터 제주시 주택에 나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1930년을 전후하여 일부 제주시 주택에 도입된 것으로 생각한다.

<표 2>에서 보면 1920년대에는 부분 돌출의 빈도가 미

8) 김홍식, ibid, p.119.

9) 김홍식 · 김석윤 · 신석하, ibid, p.497.

미할 정도로 작으나, 1930년대 이후로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960년대에 一자형 주택은 6채에 비해 부분 돌출되는 주택이 9채로 나타나 부분 돌출되는 빈도가 一자형에 비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 돌출은 1930년대 이후 완전 돌출과 함께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1940년대 이후로 갈수록 완전 돌출의 빈도가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一자+부분돌출 형에서는 대체적으로 지붕이 ㄱ자로 꺽이지 않고 一자형을 이룬다. 고팡이나 챗방 그리고 부엌이 부분 돌출되는 경우는 지붕을 돌출부분만 잇거나 눈썹지붕의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방이 부분 돌출하는 경우에는 지붕이 ㄱ자로 꺽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꺽임지붕 형태는 완전 돌출형으로 이어져 꺽임지붕의 빈도가 늘어나는 양상으로 흐른다.

一자+부분돌출 형은 一자형에서 공간을 넓히려는 의지나 기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발생한 형태로 생각한다. 一자+부분돌출 형은 一자+완전돌출 형의 전단계로 생각하며, 一자+부분돌출 형의 형태적 특성은 제주시 주택의 외형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一자+부분돌출 형은 기본적으로 一자형에 부분적으로 돌출하거나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一자형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부분 돌출된 부분을 평면에서 제외하면 一자형과 거의 같은 평면 외형을 나타낸다. 이것은 일자형에 비해서는 다소 약화됐지만, 서민들의 의식 속에 평면 외형의 전시대적인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나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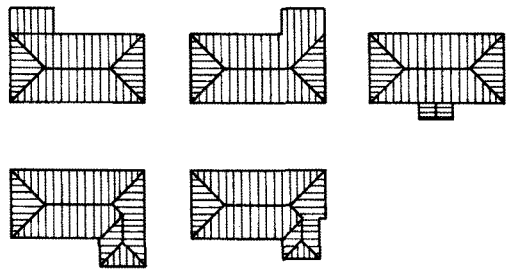

그림 18. 一자+부분돌출 형의 지붕 형태

3. 一자+완전돌출 형

一자+완전돌출 형은 면적이나 크기에 있어서 완전히 한 칸 이상 돌출되거나 덧붙여지는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이 형태는 一자+부분돌출 형의 다음 단계로 판단되는 형태이며 1930년대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

돌출하거나 덧붙여지는 실은 마루를 제외한 모든 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고팡과 챗방이 완전 돌출되어 나타나는 빈도가 많으며, 작은방, 부엌도 돌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안방은 1950년대까지는 돌출된 형태가 없고 1960년대에도 간혹 돌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표 2>에서 보면 一자+완전돌출 형은 1940년대 이후로는 그 빈도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960년대가 되면 완전돌출의 빈도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에 지어진 제주시 주택의 절반정도가 완전돌출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그 빈도는 一자형의 약 2배, 一자+부분 돌출의 약 1.5배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一자+완전돌출 형의 지붕은 모임지붕이며, 그 형태는 一자형, ㄱ자형, ㄷ자형, 불규칙 ㄹ자형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붕형태는 一자+부분돌출 형의 지붕형태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一자형으로만 나타나는 것에 비해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고팡이나 챗방이 돌출된 경우는 주로 一자형 지붕에 돌출된 부분을 잇거나 눈썹지붕으로 하여 전체적으로는 一자형의 지붕을 유지하는 빈도가 높다. 그러나 부엌이나 방이 돌출된 경우는 주로 ㄱ자형이나 ㄷ자형 그리고 불규칙 ㄹ자형으로 지붕이 이루어지는 빈도가 많다.

一자+완전돌출 형에서는 부분 돌출과 완전 돌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예가 많다. 완전 돌출이 일어나는 면은 건물의 정면과 배면이며, 1960년대에는 건물 측면에서 완전 돌출이 일어나는 특수한 예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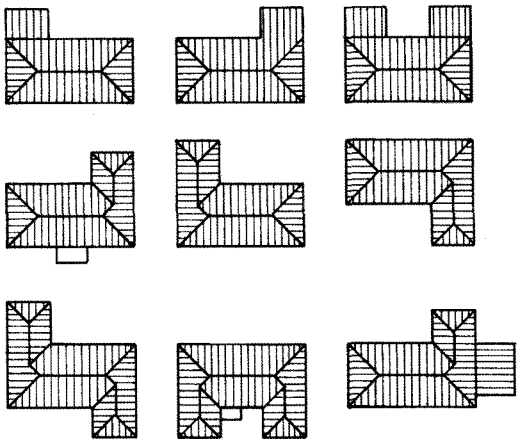

그림 19. 一자+완전돌출 형의 지붕 형태

제주시 주택의 평면 외형의 흐름은 대략 1940년대를 기준으로 하여 전시대에는 一자형의 외형을 유지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40년대는 일종의 과도기로써 一자형의 빈도와 부분 돌출과 완전 돌출을 합한 빈도가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 시대는 해방이라는 커다란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의한 건축적 영향이 직, 간접적으로 건물의 외형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며, 또한 제주시 주택의 내부공간 구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1950년대 이후는 一자형의 빈도가 줄어든 반면에 부분 돌출과 완전 돌출 형의 빈도는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960년대에는 완전돌출 형의 빈도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1940년대를 기준으로 하여 전시대는 一자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1940년대 과도기를 거쳐 1950년대 이후에는 돌출형이 주를 이루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V. 결 론

본 논문은 제주시 주요 5개 동(일도동, 이도동,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1920~1960년대 도시 서민주택에 대한 평면유형과 변천에 관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920~1960년대 제주시 주택의 평면유형은 가사공간 분리형과 가사공간 조합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별동부엌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가사공간 조합형이 가장 많은 수로 나타나고 있다.

가사공간 분리형은 안방+고팡 분리형과 안방분리형으로 세분된다. 가사공간 조합형은 안방, 부엌, 고팡, 챗방이 하나의 가사노동공간을 형성하는 유형이며, 세대별 공간분화를 보이고 있다. 가사공간 조합형은 가사노동공간의 조합형태에 따라 안방+부엌+고팡+챗방 형, 안방+부엌+챗방 형, 안방+부엌+고팡 형, 안방+부엌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별동부엌형은 전통민가의 딴정지형이 유형적으로 지속된 형이다. 제주시 주택은 3칸형과 4칸형으로 나타나며, 4칸형이 주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 주택의 시대별 평면유형의 변천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가사공간(안방·부엌) 분리형 중 안방+고팡 분리형은 1920년대는 4칸형, 1940년대와 1960년대는 3칸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엌의 위치가 건물의 후면에 위치하고 있다. 안방 분리형 중 부엌+고팡+챗방형은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비교적 평면면적이 크며, 4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부엌+고팡 형은 1920년대와 1940년대에만 나타나며, 4칸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 내에 챗방이 구성되지 않는 대신 1920년대에는 제기방이 설치되고 1940년대에는 작은방이 설치되고 있다. 부엌+챗방 형은 1930년대와 1960년대는 4칸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50년대는 3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엌은 1920년대 주택에서는 평면의 정면에 위치하다가 1950년대와 60년대가 되면 평면의 후면에 배치되고 있다. 부엌 단독형은 1940년대와 1950년대 주택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3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부엌은 평면의 후면에 배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사공간 조합형의 안방+부엌+고팡+챗방 형 중 田자 조합형은 가장 많은 분포빈도를 보이고, 전체적으로 4칸형으로만 나타나며, 다른 형에 비해 평면면적이 넓다. 田자 조합형 중 전면부엌형은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속부엌형은 1940년대 이후로 나타나고 있다. 돌출은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돌출이 일어나는 주된 실은 고팡으로 나타나고 있다.

L자 조합형은 1930년대에 나타나서 1960년대까지 지속되는 평면형이며, 평면에서 좌, 우측에 배치되어 간살이 바뀌기도 한다. 이 형의 가장 큰 특징은 고팡이 평면의 후면에 돌출, 배치되어 L자를 이룬다는 것이다. L자 조합형 중 전면부엌형은 193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가 4칸형으로만 구성되고 있다. 속부엌형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3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I자 조합형은 L자 조합형의 다음 단계에서 보이는 형으로써 1940년대에 일시적으로 보이는 평면형이고, 3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안방+부엌+챗방형 중 전면부엌형은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4칸형으로만 나타나며, 챗방이 부엌의 후면에 배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면부엌형은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방의 수가 4개로 구성되고 있다. 후면부엌형은 194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나타나는 평면형이며, 4칸형으로만 구성되고 있다. 1940년대 주택은 챗방이 부엌의 전면에 위치하며, 1950년대에는 작은방이 부엌의 전면에 위치하고, 1960년대에는 부엌의 전면에 챗방이 배치되고 있다. 전면안방형은 1940년대와 1960년대에 나타나는 평면형으로써 1940년대에는 4칸형, 1960년대에는 3칸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면안방형은 전면부엌형의 변형으로 생각한다.

안방+부엌+고팡 형은 1940년대와 1960년대에 나타나며, 1940년대에는 4칸형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1960년대가 되면 3칸형으로 구성되고 있다. 1940년대 주택의 부엌은 평면의 전면에 위치하다가 1960년대가 되면 안방이 부엌의 전면에 배치되면서 속부엌화되고 있다. 안방+부엌 형은 다른 평면형에 비해 평면면적이 작게 구성되며, 193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3칸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별동부엌형은 1940년대와 196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 평면유형으로서 안채는 3칸형, 정지(부엌)건물은 정면1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고 있다. 챗방은 1940년대에는 안방의 후면에 배치되고 있으며, 1960년대가 되면 마루의 뒤쪽에 배치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 주택의 평면형태는 3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一자형은 돌출없이 v자형의 평면형태를 유지하는 형이고 지붕은 一자형의 모임지붕으로 나타나고 있다. 一자+부분 돌출형은 부분적으로 돌출된 형을 말하며, 부분 돌출은 주로 고팡과 챗방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붕은 모임지붕으로써, 고팡, 챗방, 부엌이 돌출될 때는 一자형이며 작은방이 돌출될 때는 ㄱ자로 꺾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一자+완전 돌출형은 하나의 실이 완전히 돌출되는 형태를 말하며, 완전 돌출은 주로 고팡과 챗방에서 일어나며, 작은방, 부엌도 돌출된다. 지붕은 모임지붕이며, 一자형, ㄱ자형, ㄷ자형, 불규칙 ㄹ자형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김석윤(1996),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박사논문.
2. 김형남(1998), 『1920~1960년대 제주시 도시주택의 평면유형 및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석사논문.
3. 김홍식(1992), 『한국의 민가 - 제1권』, 한길사.
4. 김홍식·김석윤·신석하(1996), 『제주의 민속 IV - 주생활편』, 제주도.
5. 노버트 쉐나우어·김연홍 옮김(2004), 『집-6,000년 인류 주거의 역사』, 다우.

(接受: 2006. 11. 3)